

구본형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읽고

내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봄이 왔다. 새로운 계절은 이미 온몸의 감각을 더듬는다. 동시에 내가 지냈던 많은 것들이 떠나간다. 행복날개를 달고 SK텔레콤에 입사한 지 벌써 세 달. 나의 스무 살, 나의 올곧은 청춘들, 대학생이라는 명패 아래 용서되었던 많은 시공간들, 그리고 나의 어린 사랑들,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향기들. 그 모든 것들은 수습사원이라는 명패와 함께, 잘 있으오! 잘 가시오!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이다. 서울에서 전근을 온 국어교사는 학생들에게 언어 영역 문제 하나를 더 풀어주는 것보다 머릿속의 고정관념 하나를 지워주는 데 더 능숙했다. 그는 주로 '변화'라는 화두를 꺼냈다. 그리고 칠판 가득하게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썼다. 불타는 갑판 위에서의 선택으로 책은 시작한다. 앤디 모칸. 1998년 7월, 영국 스코틀랜드 근해 북해 유전에서 석유 시추선이 폭발하여 168명의 목숨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탐사선의 감독 앤디 모칸에게는 불타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두려웠다. 머뭇거리기도 잠시, 그는 불꽃이 일렁이는 차가운 북해의 파도 속으로 몸을 던졌다. 무엇이 앤디 모칸을 바다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었을까? 그가 운이 좋았던 것일까? 배에 남아 있다가 목숨을 잃은 168명은 왜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을까? 대학을 갓 졸업한 내겐 주변의 많은 것들이 두렵다. 또 불확실하다. 앞으로 삶의 많은 나날들이 대부분 불확실성의 연속일 것이다. 사회 초년생이자 인생 초년생. 내게 익숙한 것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Ctrl+C, Ctrl+V'의 리포트, 질문하지 않아도 되는 수업, 시간이 되면 밥이 나오는 학생식당. 그 모든 것들과 결별해야 한다. 나의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책은 변화와 욕망에 대한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어느 경영 관련 도서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장과 새로운 시작은 '변화관리 전문가'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작가 구본형에



대한 경외감마저 느끼게 한다. 확실한 죽음(certain death)을 택할 것인가, 죽을지도 모르는(possible death) 죽음으로의 자발적인 선택을 택할 것인가? 이 책은 명쾌한 논리로 변화와 주체적 욕망을 강조한다.

어느 회교 신비주의 시인의 말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이 보인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 이 도착한다. 설령 그들이 슬픈 군중이어서 나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내 마음을 행하니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여 나는 마음의 창을 닫아 두지 말지어다. 창이 닫히면 햇살도 들어오지 못할 뿐더러 동시에 삐걱거리는 가구와 매캐한 먼지도 나가지 못한다. 그리하여 나는 역시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두자. 생의 순간에 숨쉬어라. 경이로운 그것을 담으라. 설령 실패와 좌절이 내 발목을 휘감더라도... 도전, 그것은 나의 유일한 이름이자 보호막이라.

나는 당신의 손에 쥐어진 활입니다. 주님, 내가 썩지 않도록 나를 당기소서.

나를 너무 세게 당기지는 마옵소서. 나는 부러질까 두렵습니다.

나를 힘껏 당기소서, 주님. 내가 부러진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 책의 후기를 대신하여 작가가 소개한 『희랍인 조르바』의 작가이며, 1953년에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70세의 나이로 발표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기도-

글 | 최창규 사무(경영전략실 경영전략팀)